

할아버지 바보야

Grandpa Talks Nonsense



글 | 洪鍾震

(Hong, Chong Jin)

농어업토목기술사,
한국농촌개발연구소 이사,
수필가.
E-mail : hong37@empal.com

2001년에 태어난 경서가 금년에 여섯 살이 되었다. 경서는 우리 집안에서 33년 만에 태어난 아이라 친가에서나 외가에서의 사랑을 독차지 하며 자라고 있는 손녀이다. 아이가 좀 영특하고 총명하게 느껴져 유치원에 일찍 보냈더니 금년이면 벌써 서너 해제가 되어간다.

우리 집은 다가구주택이라 4층에선 우리가 살았고 경서네는 3층에서 5년간을 살았다. 아주 어렸을 때 제 어미가 안고 할아버지 뵈러 올라올 때면 해맑은 웃음을 짓고 온다. 한손엔 곰인형을 들고 다른 한손엔 장난감을 들고 오며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망울은 하늘에서 막 내려온 천사보다 더 예쁘고 반짝였다. 경서의 크고 동그란 눈과 길게 나온 속눈썹은 볼수록 아름다운 것이 요즘 현대미인형이다.

경서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한글을 쉽게 깨달았다. 유난히 책을 좋아하여 제 어미가 어린이 동화책, 만화책, 음식물 들춰보기 '호

기심냘냘' 같은 그림책을 사다 주었다. 그림에 과일 한쪽을 들어 올리면 완전한 과일이 되고 그 밑에는 과일에 이름이 쓰여 있는 책들 말이다.

2004년도 여름에 내가 뇌종양수술을 받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이다. 문병을 올 때 데리고 오면서 도로 양쪽에 간판 이름이라든가 약국이름이며 경찰서 이름을 알려주면 어떻게 외워두었는지 그 다음에 올 때 물어보면 잊지 않고 알더라. 할아버지 문병 갈 때면 어디쯤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알고 경서는 구경 다니는 것으로 알고 좋아 하더라.

가는 곳마다 호기심이 많고 알려고 하는 상황이 왜 그리도 많은지 어른이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다. 뭐든지 알려고 하는 집요한 의욕 때문이었는지 한글을 쉽게 깨우친 것 같다.

2005년도 추운 겨울날 영서(경서의 동생)의 돌잔치 때이다. 그간 바이올린을 배웠다. 영서 돌잔치엔 자기가 연주를 할 것이라며 두 곡을 연습해 두었다. 돌날이 닳았다. 그날에 주인공은 영서인데 자기가 주인공인양 의상도 연주하는 의상으로 차려입고 친구들한테도 연주 할 것이라고 자랑도 하고 야단이다. 친구들은 경서의 연주가 펍 부러운 모양이었다.

서투른 솜씨이지만 '생일축하노래'를 연주했다. 들어보니 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도 했다. 연주가 끝나자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어린 마음이지만 연주를 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다.

우리 집 옥상엔 조그마한 놀이공원이 하나 있다. 옥상주변엔 상추, 호박, 토마토, 고추와 장미나무,

단풍나무, 라일락, 붉은철쭉, 흰철쭉, 개나리 외에 많은 화초와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우리는 옥상을 놀이공원이라 부른다. 손녀 두자매가 집에 오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끌고 놀이공원에 가자고 야단들이다. 여름이면 어린이 수영장비에 물을 듬뿍 받아놓고 한쪽에 비치파라솔을 펼쳐놓으면 아이들은 바닷가에 온 것처럼 열심히 놀고 간다.

놀이공원엔 경서가 유치원에서 얻어온 방울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다. 조그마한 화분에 담은 것을 큼직한 화분에 옮겨 심고 매일 아침 물을 주었다. 할아버지의 토마토에 함께 물을 주었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얼마 안 있으면 새빨간 토마토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어려서부터 잘 가꾸고 보살피준 결과 미래엔 환희의 웃음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 앞 스탠드에 걸려있는 성경 표어판 끈을 뜯고 있기에 무엇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을 달라고 한다. 그것은 성경 시편 121: 1-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날마다 컴퓨터를 하면서 읽기도 하고 기도하는 성경구절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 교회에 가서 하나 얻어다 주마하고 일러주었다.

한참 책상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다. 경서가 돌아 간 뒤에 연습 메모지를 보니 평소와는 반대 방향으로 놓여있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놓고 안에

다 '할아버지 바보'라고 써놓고 할아버지가 보지 못 하도록 재주를 부리고 간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표현이 확실한 세대이다. 어른들은 이런 세대들 속에서 편승해 살아가며 고집만 부리고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표어를 하나 얻어다가 경서에게 주었다. 그래 할아버지가 바보였었나 보다. 늙은 할아버지는 경서가 보는 것처럼 바보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된 것을 늙은 고집이 어린 손녀 마음에 상처를 주었나 보다.

표어를 달라고 할 때 얼른 주고 교회에 가서 다시 하나 얻어 가졌더라면 '참 좋은 할아버지'라고 썼겠지?

사람이 늙어가면서 지켜야할 숙년인생칠계명(熟年人生七誠命)이라는 것이 있다. 즉 첫째, 남보기에 깨끗하게(Clean up), 둘째, 옷도 점잖고 품위 있게 입고(Dress up), 셋째, 말은 되도록이면 적게 하고(Shut up), 넷째, 어느 모임이든 건강하게 자주 나타나고(Show up), 다섯째, 젊은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Cheer up), 여섯째, 경제적인 처리를 잘하고(Pay up), 일곱째, 포기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포기해라(Give up)는 것이다. 아마도 나는 숙년인생칠계명 중 다섯째와 마지막 계명을 깜빡 잊고 어린 경서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보다.

이제는 숙년인생칠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원하는 것들을 잘 보살피면서 도와주는 것이 이 늙은 할아버지의 희망이고 바람이 아니겠다.

(원고 접수일 2007년 11월 24일)